

The Economy

LS Edge

Investment Strategy | 투자코멘트 | 2026. 9. 14

8월 미국 CPI: 상승한 유가와 금리 인상 확률

해외채권/크레딧 | 박지빈 | jibin@ls-sec.co.kr

헤드라인 예상치 부합, 근원물가 상승폭 확대

8월 미국 CPI는 0.4%MoM, 3.4%YoY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. 에너지 가격이 -1.5%→2.1%MoM, 휘발유가 -2.9%→3.9%MoM으로 반등하면서 최근 2개월간 헤드라인 상승을 제약했던 에너지의 하방 압력은 소멸됐다. 근원 CPI의 YoY 상승률은 2.5%→2.4%로 하락했으나, MoM 상승률은 0.3%로 예상치와 전월치(각각 0.2%)를 상회했다. 주거 임대 제외 서비스 물가도 0.2%→0.3%로 상승폭을 확대하며, 에너지 반등과 함께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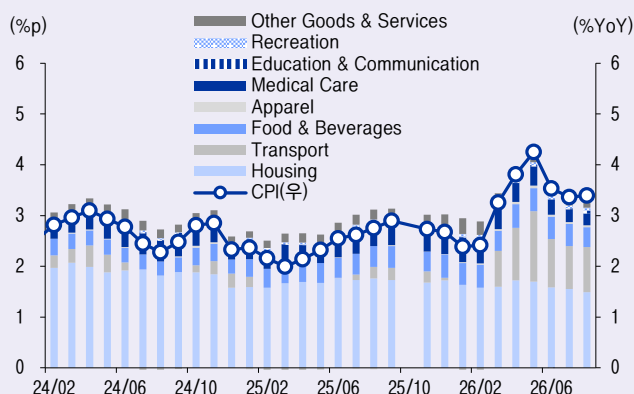
임대료는 둔화, 컴퓨터 가격은 상승세 지속

주거비는 0.1%→0.3%MoM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. 세부적으로는 호텔 등 외부숙박이 -2.8%→2.4%로 반등한 반면, 주거 임대료와 자가주거비(OER)는 각각 0.3%→0.2%로 둔화됐다.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는 0.2%→0.3%로 상승폭을 확대했으며, 통신(+2.3%)과 항공료(+2.7%), 교육(+0.8%) 등이 상승한 반면 의료서비스(-0.2%)와 자동차보험(-0.8%)은 하락했다. 근원 상품은 신차(+0.3%)와 중고차(+0.4%) 가격 상승에도 전체 상승률이 0.2%에서 0.1%로 낮아졌다. 다만 컴퓨터·주변기기·스마트홈 보조기기 가격(비계절조정 기준)은 7월 3.5%에 이어 8월에도 3.8% 상승했다. AI 서버용 메모리 중심의 생산능력 배분과 PC용 메모리 공급 제약을 감안하면,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.

유가 반등에 근원물가까지 가세하며 동결 근거 약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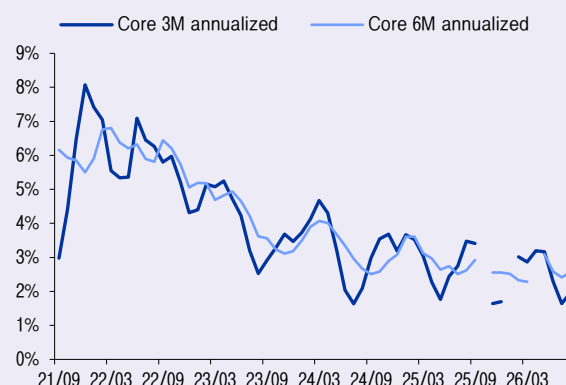
7월 CPI 코멘트에서 경계했던 유가 상승의 영향이 8월 휘발유 가격 반등을 통해 헤드라인 물가에 반영됐다. 근원 CPI의 월간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주거 임대 제외 서비스가 반등하면서, 에너지 외 물가 부담도 다시 높아졌다. 임대료와 근원 상품의 상승폭 축소가 일부 완충 요인으로 작용했지만, 이번 CPI는 연준의 물가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다소 부담스러운 결과였다. CME Fed Watch 상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70%대 초반에서 87%까지 상승했다. 8월 CPI는 7월 대비 금리 동결을 뒷받침할 근거를 약화시키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다.

그림1 CPI 상승률과 기여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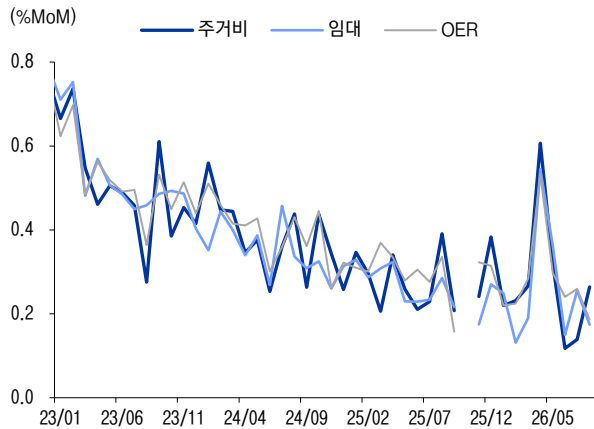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근원 CPI 3개월, 6개월 연율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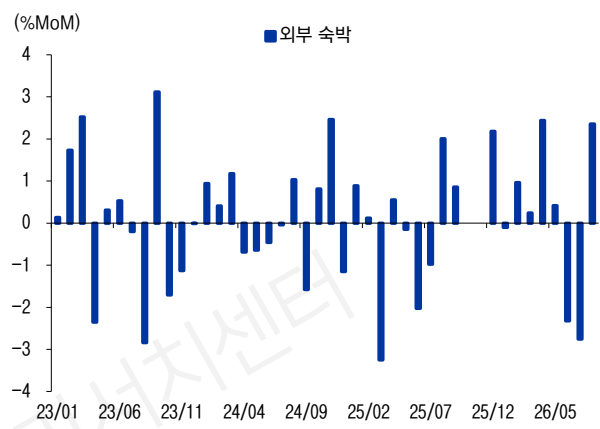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주거비 상승폭 확대에도 임대료 둔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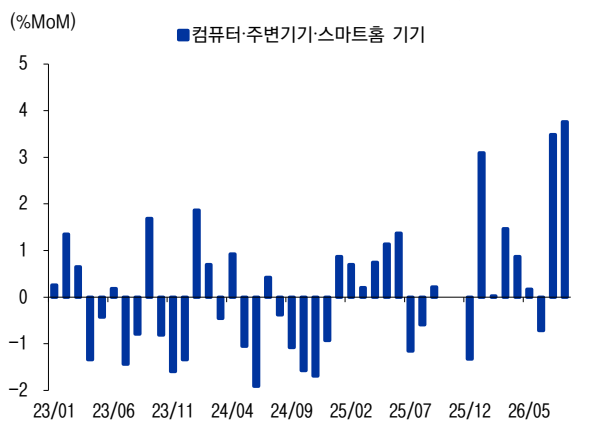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외부숙박 가격, 전월 하락폭 일부 되돌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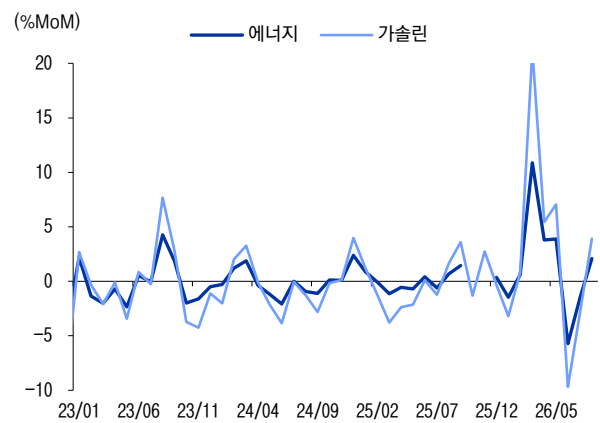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5 컴퓨터 가격, 2 개월 연속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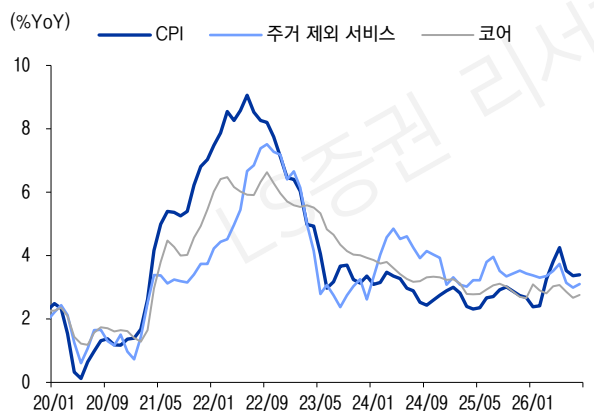
자료: CEIC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에너지 가격 반등, 휘발유 중심



자료: CEIC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7 헤드라인, 코어, 주거 제외 서비스 추이



자료: CEIC, LS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8 CME Fedwatch 상 금리 경로

	CME FEDWATCH TOOL - CONDITIONAL MEETING PROBABILITIES								
MEETING DATE	350-375	375-400	400-425	425-450	450-475	475-500	500-525	525-550	550-575
2026-09-16	12.7%	87.3%	0.0%	0.0%	0.0%	0.0%			
2026-10-28	6.5%	51.0%	42.5%	0.0%	0.0%	0.0%	0.0%	0.0%	0.0%
2026-12-09	2.3%	22.1%	48.0%	27.6%	0.0%	0.0%	0.0%	0.0%	0.0%
2027-01-27	1.4%	14.4%	37.9%	35.6%	10.8%	0.0%	0.0%	0.0%	0.0%
2027-03-17	0.6%	6.8%	24.2%	36.9%	25.2%	6.3%	0.0%	0.0%	0.0%
2027-04-28	0.4%	5.1%	19.4%	33.4%	28.5%	11.5%	1.7%	0.0%	0.0%
2027-06-09	0.3%	3.6%	14.9%	29.0%	30.0%	16.8%	4.8%	0.5%	0.0%
2027-07-28	0.3%	3.3%	13.7%	27.5%	29.9%	18.2%	6.1%	1.0%	0.1%
2027-09-15	0.2%	3.1%	13.1%	26.7%	29.7%	18.9%	6.8%	1.3%	0.1%
2027-10-27	0.2%	3.1%	13.1%	26.7%	29.7%	18.9%	6.8%	1.3%	0.1%
2027-12-08	0.5%	3.9%	14.2%	26.9%	28.9%	18.0%	6.4%	1.2%	0.1%

자료: CEIC, LS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박지빈)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